영어어문교육 *제 27권* 4호 2021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1.27.4.1

학습가능성(Learnability) 관점에서 가산성(Countability)의 재분석*

김용명
(안동대학교)

Kim, Yongmyeong (2021). Revisiting countability of English in terms of learnabil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7*(4), 1-16.

AS Parrot (2010) points out, acquiring countability of nouns is the core of grammar on nouns. But IL (interlanguage) learners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the countability (Celce-Murcia & Larson-Freeman, 1999; Cowan, 2013). To cope with this problem, based on semantic features presented by Aarts (2018) and Fromkin, Rodman & Hyams (2014),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of countability on nouns' in order to distinguish countable from uncountable nouns, which consists of 3 semantic features, [±countable]/[±abstract]/[±amorphous]. The system tells us that countable nous have [+countable]/[-abstract]/[-amorphous], whereas uncountable nous have [-countable]/[+abstract]/[+amorphous]. Also, it shows us that the conversion of countability can be accounted for by assigning converted or reversed values to the 3 semantic features.. In a sense, the system could be said to be a 'linguistic sense' to the distinction between countable and uncountable nouns. To activate this sense, this study suggests '5 viable criteria' for specifying the system to teaching in practice, and a kind of consciousness raising tasks (CR tasks) for applying it to the classroom. In conclusion, the system, the 5 viable criteria, and the CR tasks will be enhancing learnability for IL learners in acquiring the countability as well as teachability for teachers in teaching it.

[nouns/countability/semantic feature/CR tasks/linguistic sense, 명사/가산성/의미자질/의식 발현 과업/언어적 감각]

Ⅰ. 서론

명사의 습득에는 두 가지 측면, 즉, 명사의 의미 습득과 명사의 문법 습득이 있다. 명사의 의미 습득은, Kim(2007)의 말을 빌리면, 소위 어휘 학습(lexical learning) 과정을 통해 비교적 점진적으로 습득되는 점진 규칙(gradual rules)의 특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성을 갖고 있다. 반면, 명사의 문법 습득은 통사적 특성(syntactic driven)을 갖고 있으며, 영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많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습득되고 나면, 오류에 대한 자가 진단과 자기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오류의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 규칙(sudden rules)의 특성을 갖고 있다.

명사 문법의 핵심은 가산성(countability), 즉,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countable nouns)이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uncountable nouns)에 있다. 가산성에 따른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1) a. ***a*** book, ***two*** book***s***, book***s***,
b. *money*, ****a*** money, ****two*** money**s**, *money***s***
c. How ***many*** *books* do you have?
d. How ***much*** *money* do you have?

(2) a. There is ***a*** *book* on the desk.
b. ∅*Honesty* is the best policy.
c. There is ∅ *furniture* in her room.
d. ***The*** police ***are*** on the murder's track.
e. ***Every*** book ***has its*** own merits.
f. He had ***little*** *success*.

(1)에서 보듯이, *book*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에 속하며, 따라서 부정관사 *a(n)*와 양립할 수 있으며, 수사와 함께 쓰이며, 복수형이 가능하며, 수를 나타내는 양화사(quantifier) *many, few*와 양립할 수 있다. 반면, *money*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에 속하며, 따라서 부정관사 *a(n)*와 양립할 수 없으며, 수사와 함께 쓰일 수 없으며, 복수형이 불가능하며,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 *much, little*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2)에서 보듯이,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사 앞에 수식어(prenominal modifiers)로 올 수 있는 한정사(determinatives)의 유형이 달라지며, 또 명사구를 주어로 삼는 동사의 수와 명사구를 지시하는 (대)명사의 인칭과 수가 달라진다.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명사의 가산성, 즉,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인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인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이다. 대부분의 기존 문법서에서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에 대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목록만 제시할 뿐 체계적으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명사의 가산성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다음 (3)과 같은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는 경향이 있다.(문용, 2015; Celce-Murcia & Larson-Freeman, 1999; Cowan, 2013; Parrot, 2010)

(3) a. ***An*** Honesty is the best policy.
b. *There are ***two*** furniture***s*** in her room.
c. *The police ***is*** on the murder's track.
d. *He had ***few*** success
e. *How ***many*** *money* do you have?
f. *Did you examine **each** side*s* of the coin?

본 연구에서는 중간언어 학습자들이 가산성의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3)과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Aarts(2018), Fromkin, Rodman과 Hyams(2014)와 Haegeman과 Gueron (1999) 등이 제안한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s)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 (4)과 같은 가산성의 체계(a system of countability)를 제안한다.

(4) a. Countable nouns: [+countable]/[-abstract]/[-amorphous]
b. Uncountable nouns: [-countable]/[+abstract]/[+amorphous]

(4)에서 보듯이, 가산성 체계는 3개의 의미자질, 즉, [±countable], [±abstract], [±amorphous]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 명사는, (4a)에서 보듯이, 셀 수 있으므로 [+countable] 자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abstract] 자질을,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갖춘 정형성을 갖고 있으므로 [-amorphous] 자질을 부여한다. 반면, 불가산 명사는, (4b)에서 보듯이, 셀 수 없으므로 [-countable] 자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을 갖고 있으므로 [+abstract] 자질을, 정해진 모양과 특정의 형식이 없는 무정형성을 갖고 있으므로 [+amorphous] 자질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간언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4)의 가산/불가산 명사를 구분하는 의미자질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중간언어 학습자들 어떤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한 5개의 실행 기준(5 viable criteria)을 제시할 것이다(본론에서 상세한 논의할 것임). 이를 통해 중간언어 학습자들이 명사의 가산성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가산성 습득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linguistic intui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언어 형식과 기능으로서 명사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4)에서 제시한 의미지 자질에 따라 명사의 가산성을 재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는 결론 및 명사의 가산성 습득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명사구의 문법 형식(grammatical form)과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s)에 관해 논의할 것이며, 이어서 명사의 가산성 습득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볼 것이다.

1. 명사구의 문법적 형식과 기능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구는 다음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조로 나타난다.

(5) a. ***a*** camera, ***the*** door, ∅ ambition
b. ***this*** dog, ***these*** dogs, ***that*** film
c. ***my*** books, ***her*** sweetheart, ***John's*** bicycle
d. ***which*** woman, ***what*** computers, ***whose*** house
e. ***two*** pens, ***the first*** love, ***the second*** attempt
f. ***one-third of*** audience, ***two-fifths of*** voters
g. ***each*** book, ***every*** person, ***any*** music, ***some*** people

(5)에서 보듯이, (5a)의 *a, the, ∅*와 같은 관사(article) 다음에, (5b)의 *this/that, these/those* 등과 같은 지시사(demonstratives) 다음에, (5c)의 *my, your, Jane's* 등과 같은 소유 형용사(possessive adjectives)다음에, 또한 (5d)의 *which, what* 등과 같은 의문 형용사(interrogative adjectives) 다음에 명사가 온다. 또한 (5e)의 *one/first, tow/second, double/twice* 등과 같은 수사 다음에, (5f)의 *one-third, three-fourths* 등과 같은 분수 다음에, (5g)의 *some, any, each, every* 등과 같은 양화사 다음에 명사가 나타나며, 이것들이 결합되어 명사구가 구성된다.

(5)에서 나타난 다양한 명사구의 구조를 다음 (6)과 같이 명사구 구조(noun phrase structures)로 일반화할 수 있다.

(6) NP Structures: Determinatives + N

(6)에서 보듯이, 명사구는 명사와 한정사(determinatives)로 구성된다. 한정사에는 관사(*a, the, ∅*), 지시사(*this/that, these/those*), 소유 형용사(*my, your, Jane's, etc.*), 의문 형용사(*what, which, whose, etc*), 수사 (*one/first, tow/second, double/twice, etc.*), 분수(*two-thirds, three-fourths, etc.*), 양화사(*some, any, each, every, etc.*) 등이 있다.

또한 (6)의 명사 관련 구조는, 다음 (7)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법적 기능, 구체적으로, 주어, 주격보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등으로 실현된다.

(7) a. [$_{NP}$ This shoe] hurts my toe.
b. He was [$_{NP}$ an honest man].
c. Jane admires [$_{NP}$ her fiance].
d. She told [$_{NP}$ her boyfriend] a lie.

e. They elected him [$_{NP}$ captain].
f. The crisis has began [$_{NP}$ last year]

(7a)에서 명사구 *This shoe*는 주어로, (7b)에서 명사구 *an honest man*은 *be* 동사의 보어로, (7c)에서 명사구 *her fiance*는 동사 *admire*의 목적어로, (7d)에서 명사구 *her boyfriend*는 동사 *tell*의 간접 목적어로, (7e)에서 명사구 *captain*은 목적격 보어로, (7e)에서 명사구 *last year*는 부가어(adjuncts)로 각각 기능을 한다.

2. 명사의 가산성 습득에 관한 선행 연구

정정승과 임미숙(2005)은 중·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사 가산성에 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정관사를, 중학생은 부정관사를 오류가 많았으며, 특히 명사의 가산성 전용(conversion)과 관련된 관사의 활용성이 낮았다. 또한 가산성의 오류의 근원은 기계적 암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화용-의미 변인에 대한 가산성 제약을 이해하지 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이송이와 김남국(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영어의 명사의 가산성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의 가산성이 일치할 경우, 영어 명사의 가산성을 쉽게 이해하는 반면, 불일치할 경우, 영어 명사 가산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한국어와 영어의 가산성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 능숙도에 상관없이 가산성 이해가 낮음을 보여 주었다. 이현정과 성민창(202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가산명사의 습득에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문장 기반 과업(sentence-based tasks)과 그림 기반 과업(picture-based tasks)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가산성과 불가산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두 과제에서 유사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였으며, 과제간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장 기반 과제에서 언어적 맥락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기반 과제에서 그림의 명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현(2005)은 가산성은 명사의 내재적 특성이 아니므로 명사가 개별성(individuation)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상태이며, 개별성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가산명사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Ⅲ. 가산성의 재분석

2장에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는 관사, 지시사, 양화사 등과 같은 한정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명사구를 구성하며, 동시에 문장 속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등과 같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절에서는 의미

론에서 제안한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s)의 개념을 도입하여, 명사의 가산성을 재분석하고자 한다.

1. 가산성 체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의 가산성은 한정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고, 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 및 대명사 일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명사 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8~9)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기존 문법서에서 가산성에 대한 설명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며,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대한 목록만 제시할 뿐 체계적으로 가산성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a. The distinction between countable and uncountable is based on whether or not we can count (1,2, 3, 4...) what the nouns describe (Parrot, 2010, p. 10).
b. Thus, there are some nouns that can be counted, and so we can use *a* or *an* with them and can also make them plural. There are other nouns that typically are not counted, and so we do not use *a* or *an* with them and do not typically make them plural (Altenberg & Vago, 2010, p. 14).
c. Countable nouns have plural, and can be used with a/an. Uncountable nouns have no plural, and cannot normally be used with *a/an.* (Swan & Water, 2015, p. 202)

(9) a. 보통명사(common nouns): *girl, book, tree, teacher, year, month, event, crime* 등 그 수가 많은데, 공통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명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보통명사는 *a(n)*를 붙이고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b. 물질명사(mass nouns): 재료(*metal, paper*), 음식(*sugar, meat, butter*), 액체, 기체, 원소(*water, oxygen, uranium*) 등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한다.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c. 집합명사(collective nouns): *army, assembly, audience, committee, family* 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룬 명사를 말한다.
d. 추상명사(abstract nouns): *kindness, happiness, honesty, action, judgement* 등과 같이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를 말한다. 추상명사는 원칙적으로 관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복수형도 만들지 않는다.(문용, 2015, pp. 211-218)

기존 문법서에서는, (8)에서 보듯이, 가산 명사는 셀 수 있고, 부정관사 *a(n)*와 양립할 수 있으며, 복수형을 만들 수 있지만,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고, 부정관사와 양립할 수 없고, 복수형을 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9)에서 보듯이, 명사의 종류를 하위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목록을 제공하고, 통

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면 사정상 생략하였지만, 이 같은 설명에 뒤이어 영어 학습자들이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 문제와 명사의 유형별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과연 가산성에 대한 이 같은 기준과 설명만으로 가산성을 습득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기준은 외견상 분명한 기준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별 명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은 모호해지고,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가산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음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10) a. *All plants need *light**s***.
b. ***An** experience makes us wise.
c. ***Many**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violent behaviors.
d. *How ***much*** *dollars* do you have?
e. *He had ***few*** *success*.
f. **The news* ***are*** good.

(11) a. Do you have ***a*** *light* in your bed?
b. I have ***a*** painful *experience*.
c. He went to ∅ *school* yesterday
d. He wants to be ***a*** *Shakespeare*.

(10)에서 보듯이, 가산성 습득의 초기 단계에 중간 언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임의적으로 식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가산 명사 또는 불가산 명사와 양립할 수 있는 한정사의 선택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가산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가산 명사가 가산 명사로, 역으로 가산 명사가 불가산 명사로 사용되는 명사의 전용 사례를 접하면, 이들은 가산성 습득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역으로 NS들은 (8)의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명사의 가산성 기준에 따라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식별하고, 또한 (9)의 명사의 하위분류의 각 목록과 통사적 특성을 일일이 암기하여 이를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다만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사용하면서 쌓아온 언어적 경험을 토대로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직관적으로 주어진 언어 사용맥락에 부합하게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역으로 중간 언어 학습자들도 NS의 가산성 습득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를 일종의 언

어적 감각(linguistic sense)로 지각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사의 가산성에 관해 NS의 언어적 직관을 어떻게 개념화 또는 형식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가능한 답을 얻기 위해, Aarts(2018), Fromkin, Rodman과 Hyams(2014)와 Haegeman과 Gueron(1999)이 제안한 의미 자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NS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산성 체계(a system of countability)'를 다음 (12)과 같이 제안한다.

(12) A System of Countability

	[±countable]	[±abstract]	[±amorphous]
a. Countable Noun	+	-	-
b. Uncountable Noun	-	+	+

NS들은, (12)에서 보듯이, 명사의 가산성에 대해 3개의 의미자질, 즉, [±countable], [±abstract], [±amorphous]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NS들은 가산성을 식별한다고 전제한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먼저 [±abstract] 자질에 대해, 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셀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불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셀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abstract] 자질에 대해, 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불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amorphous] 자질에 대해, 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갖춘 정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불가산 명사는 '+' 값이 부여되어, 정해진 모양과 특정의 형식이 없는 무정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산성 식별의 기준

중간언어 학습자와 실제 교육 현장을 고려해보면, (12)의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중간언어 학습자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교실 상황에서 이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간언어 학습자가 어떤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12)의 가산성 체계를 다음 (13)과 같이 5개의 실행 기준(5 viable criteria)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13) 5 Viable Criteria for Distinction between Countable and Uncountable Nouns
Criterion 1: Is a noun abstract?
Criterion 2: Is a noun amorphous?

Criterion 3: Is a noun collective?
Criterion 4: Is a noun countable?
Criterion 5: Is a noun the only one?

이제 (13)의 5개의 가산성 식별 실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하고, 다음 (14)의 어휘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의식(conscious-raising)하게 한다.

(14) Word List
happiness, salt, water, statistics, love, family, sun, coal, light, furniture, table, kindness, sugar, politics, computer, Shakespeare, decision, committee, dog, cat, money, desk, dollar, meat, cent, Picasso, pen, book, Loden, Seoul

이제 (13)의 5개의 실행 기준을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하게 해보자. 먼저 학생들에게 “Criterion 1: Is a noun abstract?”를 (14)의 어휘 목록에 적용하게 해보자. 여기서 *abstract*은 물리적 구체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 및 정서(감정)의 작용과 관련하여 *abstract* 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Criterion 1을 적용하여 다음 (1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5) *happiness, love, decision, kindness, politics, statistics*

(15)의 단어들은 인간의 정신, 즉, 인지와 감정과 관계되는 소위 추상 명사(abstract nouns)에 속하며, 이외에도, *feeling, sadness, anger, ambition, success, pleasure, linguistics* 등이 있다. 이 같은 추상 명사는 [+abstract] 자질을 가지며, 불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정관사, 수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 *much, little* 등과 양립할 수 있다.

다음 학생들에게 “Criterion 2: Is a noun amorphous?”를 (14)의 어휘 목록에 적용하게 한다. 여기서 *amorphous* 란 인간의 정신 작용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일정한 모양과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Criterion 2를 적용하여 다음 (16)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어를 찾아낼 것이다.

(16) *water, light, meat, coal, salt*

(16)의 단어들은 물리적 세계,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소위 물질 명사(mass nouns)에 속하며, 이외에도, *air, wood, food, metal, sugar* 등이 있

다. 이 같은 물질 명사는 [+amorphous] 자질을 갖고 있으며, 불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정관사, 수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 *much, little* 등과 양립할 수 있다.

다음 학생들에게 "Criterion 3: Is a noun collective?"를 (15)의 어휘 목록에 적용하게 한다. 여기서 *collective* 란 하위 구성원(members)을 갖고 있어 하나의 집합체(a set)를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Criterion 3을 적용하여 다음 (17)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어를 식별해낼 것이다.

(17) a. *furniture, money*
b. *committee, family*

(17a)에서 *furniture*의 하위 구성체에는 *table, chair, desk* 등이 있으며, *money*의 하위 구성체에는 *dollars, cent, pound*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물, 즉, [-animate]의 자질을 지닌 하위 구성체를 갖는 명사를 소위 '비생물 집합 명사(nonanimate collective nouns)' 라고 칭하며, 이외에도 *clothing, food, furniture, machinery, merchandise, stationary* 등이 있다. 이 같은 비생물 집합 명사에는 [-animate collective] 자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불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정관사, 수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 *much, little* 등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비생물 집합 명사의 구성체, 예를 들어, *desk, chair, table* 등은, 대부분 경우, 가산 명사가 된다. 한편 (17b)에서 *family*의 하위 구성원은 *wife, husband, brother, sister* 등이 있으며, *committee*의 하위 구성원은 *chair, boards, committee members*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생물, 즉, [+animate]의 자질을 지닌 구성원을 갖는 명사를 소위 '생물 집합 명사(animate collective nouns)' 라고 칭하며, 이외에도 *audience, army, assembly, class, committee, crowd, group, family, public, staff, team, nation* 등이 있다. 이 같은 생물 집합 명사는 [+animate collective] 자질을 부여할 수 있으며, (17a)의 비생물 집합 명사와 달리, 문맥에 따라, 다음 (18)에서 보듯이, 가산 명사로 또는 불가산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18) a. *The audience* ***was*** very small.
b. *The audience* ***were*** greatly moved.

다음 학생들에게 "Criterion 4: Is a noun countable?"을 (14)의 어휘 목록에 적용하게 한다. 여기서 *countable* 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다. 이제 학생들은 Criterion 4를 적용하여 다음 (19)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어를 구별해낼 것이다.

(19) *table, desk, dollar, cent, eraser, computer, pen, book, dog, cat*

(19)의 단어들은 셀 수 있으며, 유사한 모양과 기능, 속성을 가진 것을 수없이 복제(copy)하거나 재생(reproduce)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셀 수 있고,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것을 복제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명사를 보통 명사(common nouns) 또는 구체 명사(concrete nouns)라 한다. 구체 명사는 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으며, [+countable] 자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정관사, 수사와 양립할 수 있으며, 수를 나타내는 양화사 *many, few* 등과 양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Criterion 5: Is a noun the only one?"을 (14)의 어휘 목록에 적용하게 한다. 여기서 *the only one* 은 자연계와 인간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는 유일하게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제 학생들은 Criterion 5를 적용하여 다음 (20)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어를 식별해낼 것이다.

(20) *Shakespeare, Picasso, Loden, Seoul*

(20)의 단어들은 이 세상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 것을 나타내는 명사로 소위 고유 명사(proper nouns)라 한다. 이와 같은 고유 명사에는 *sun, moon*과 천문명, *Sunday, Monday, March, May* 등과 같은 월과 요일을 나타내는 달력명, *Hemingway, Kennedy* 인명, *Thames, Himalayas, Mississippi* 등과 같은 지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유 명사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므로 불가산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으며, [+proper] 자질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관사, 수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수/양을 나타내는 양화사 *many/much, few/little* 등과 양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가산성과 양화사의 양립관계에 대해 논의해보자.

(21) a. How *many books* do you have?
b. *How *many money* do you have?
c. How *much money* do you have?
d. *How *much books* do you have?

(21a)에서 양화사 *many*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며, 명사 *books*도 동일하게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므로 *many*와 *books*는 양립가능하며, 따라서 (21a)는 문법적 문장이 되지만, (21b)에서 양화사 *many*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는 반면, 명사 *money*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므로 두 자질은 서로 상반되므로 *many*와 *money*는 양립불가능 하며, 따라서 (21b)는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한편 (21c)에서 양화사 *much*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며, 명사 *money*도 동일하게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므로 *much*와 *money*는 양립가능하며, 따라서 (21c)는 문법적 문장이 되지만, (21d)에서 양화사 *much*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는 반면, 명사 *books*는 [-abstract]/[+countable] 자질을 가지므로 두 자질은 서로

상반되므로 *much*와 *books*는 양립불가능하며, 따라서 (21d)는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이상의 논의한 바와 같이, (12) 및 (13)에서 제시된 가산성 체계와 5개의 가산성 식별 실행 기준은 NS들이 가산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의 '언어적 직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언어 학습자도 가산성 체계와 가산성 식별 기준을 가산성 습득의 '언어적 감각' 으로 활용한다면, 가산성 습득의 학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명사의 전용

명사의 전용(conversion)이란 가산 명사가 불가산 명사로 또는 그 반대로 불가산 명사가 가산 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명사의 전용은 가산성 습득 과정에 있는 중간언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그들을 가산성의 늪에 빠지게 하곤 한다. 중간 언어 학습자들이 가산성 습득 과정에 겪기 마련인 이 같은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논의의 (12)의 가산성의 체계를 토대로 다음 (22)과 같이 명사의 전용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22) Conversion of Countability

Uncountable Noun	⇄	Countable Noun
[-countable][+abstract][+amorphous]	⇄	[+countable][-abstract][-amorphous]

(22)에서 보듯이, 불가산 명사가 가산 명사로 전용되면, 가산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셀 수 있고, 구체성을 지니며,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띤 가산 명사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산 명사가 불가산 명사로 전용되면, 불가산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셀 수 없고, 추상성을 지니며, 정해진 모양과 특정의 형식이 없는 무정형성을 띤 불가산 명사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추상 명사에서 구체 명사로의 전용에 관해 살펴보자.

(23) a. *Politics* make***s*** impossible possible.
b. Nobody knows what his *politics* **are**.

(24) *a word/piece of advice, a series of research, an article of news, a branch of economics, some research, etc.*

(23a)에서 *politics*는, 동사 *make**s***에서 드러나듯이, 단수 동사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politics*가 불가산 명사(여기서는 추상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내며, [-countable]/[+abstract]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며, 일반적 학문적 의미의 *politics*를 나타낸다. 반면, (23b)에서 *politics*는, 동사 *are*에서 드러나듯이, 복수 동사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politics*가 가산 명사 전용되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countable]/[-abstract]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며, 셀 수 있는 구체적 의미, 즉, *repeated political strategies*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vidence, input, information, research* 등과 같은 추상명사는 (23b)와 같이 가산 명사로 전용될 수 없으며, 항상 단수 취급을 하며, 단수 동사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추상명사의 경우, (24)에서 보듯이, 조수사(partitives)와 *some*을 사용하여 수량화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 물질 명사의 구체 명사로의 전용에 관해 살펴보자.

(25) a. All plants need *light*.
b. Do you have ***a*** *light* in your bed?

(26) *a cup of coffee, a bottle of beer, a slice of bread, a lump of sugar, a sheet of paper, a bar of chocolate, a bag of flour, a sack of rice, a basket of fruit, etc.*

(27) *a coffee, two coffees, some coffee, a tea, teas, a wine, wines, some wine, etc.*

(25a)에서 *light* 앞에 무관사(zero article) ∅가 쓰이고 있으며, 이는 *light*가 불가산 명사(여기서는 물질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countable]/[+amorphous]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며, 일반적 무정형성을 지닌 *light*를 의미한다. 반면, (25b)에서 *light* 앞에 부정관사 *a*가 쓰이고 있다. 이는 *light*가 가산 명사 전용되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countable]/[-amorphous]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며, 셀 수 있는 일정한 모양을 갖춘 구체적 의미, 즉, *an electric light bulb*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 명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해진 모양이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수사를 사용하여 이를 수량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격식체(informal styles)에서는 단순히 부정관사를 사용하거나 복수형을 사용하거나 양화사 *some*를 사용하여 구체화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구체명사의 추상명사로의 전용에 관해 살펴보자.

(28) a. He is in ***a*** *hospital*.
b. He is in *hospital*.

(28a)에서 *hospital* 앞에 부정 관사 *a*가 쓰이고 있으며, 이는 *hospital*가 가산 명사(즉, 구체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countable]/ [-abstract]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며, 셀 수 있는 구체적 *hospital* 을 나타내므로 '병원에 있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27b)에서 *hospital* 앞에 무관사 ∅가 쓰이고 있으며, 이는 *hospital*가 불가산 명사 전용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countable]/[+abstract]의 의미자질을 갖게 되며, 셀 수 없는 추상적 의미(병을 치료하는 것)를 나타내므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유명사의 구체 명사로의 전용에 관해 살펴보자.

(29) a. Make the earth ***an*** Eden.
b. He wants to be ***a*** Shakespeare.
c. He is ***a*** second *Machiavelli*.

원칙적으로 *Eden, Shakespeare, Machiavelli* 등은 불가산 명사(여기서는 고유명사)이므로 무관사 ∅를 취한다. 그러나 (29)에서 보듯이, 이들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 *a(n)*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가산 명사로 전용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러 곳의 *Eden* 중에 한 곳의 *Eden*, 여러 명의 *Shakespeare, Machiavelli* 중의 한 명의 *Shakespeare, Machiavelli*을 나타내므로 *Eden* 같은 곳, *Shakespeare* 또는 *Marchiavelli*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의 문법 습득의 핵심은 가산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명사의 가산성에 따라 명사가 어떤 한정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할 수 있지가 결정되며, 또한 가산성에 따라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의 일치, (대)명사의 수 및 인칭의 일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법서는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간언어 학습자가 가산성 습득 과정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문용, 2015; Celce-Murcia & Larson-Freeman, 1999; Cowan,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언어 학습자의 이 같은 가산성 습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가산성 습득의 체계적인 논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Aarts(2018), Fromkin, Rodman과 Hyams(2014) 등이 제안한 의미 자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명사의 가산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가산성 체계는 3개의 의미자질, [±countable], [±abstract], [±amorphous]로 구성된다. 이 가산성 체계에 따르면, 가산 명사는 [±countable] 자질에 대해 '+' 값을, [±abstract]와 [±amorphous] 자질에 대해 각각 '-' 값을 가진다. 반면, 불가산 명사는 [±countable] 자질에 대해 '-' 값을, [±abstract]와 [±amorphous] 자질에 대해 각각 '+' 값을 가진다. 또한 이 가산성 체계에 대한 중간언어 학습자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산성을 식별할 수 있는 5개의 가산성 식별 실행 기준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산성 체계와 명사의 전용을 상호 연계하여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중간언어 학습자의 가산성 습득의 일관성을 깨트려온 명사의 전용 사례가 역으로 가산성 습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김용명(2020, p. 77)에 제안한 바와 같이, Fotos와 Ellis (1991)가 제안한 소위 의식 발현 과업(consciousness raising tasks, 이하 CR 과업)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R 과업의 구성 원칙에 따라 가산성에 대한 CR 과업을 구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먼저 가산성과 관련된 학습자 오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오류의 요인을 의식하게 한다. 이어서 하위분류된 명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명사로 구성된 어휘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가산성을 의식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그런 다음 가산성 식별의 실행 기준 5가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주어진 목록에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내게 한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한 후, 학습자들 스스로 가산성 체계를 설정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언어 학습자들은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가산성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산성 체계, 가산성 식별 실행 기준, 명사 전용의 체계화, CR 과업은 중간언어 학습자에게는 가산성 습득의 학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역으로 교사에게는 가산성 습득의 교수가능성 (teachability)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용현. (2005).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화 과정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35*, 21-41.

김용명. (2020). 수여동사(Dative verbs)의 재음미. *영어어문교육, 26*, 61-78.

문용. (2015).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박영사.

이송이, 김남국. (2017). 한국 대학생의 명사 가산성 인식 연구. *언어학 연구, 42*, 25-47.

이현정, 성민창. (2021). 초등영어 학습자의 가산명사 판정에서 언어적 맥락과 명제적 정보의 활용. *영어학, 21*, 56-70.

정정승, 임미숙. (2005). 영어의 가산성 명사와 한국 학생들의 관사 습득에 관한 고찰. *언어과학연구, 35*, 259-279.

Aarts, B. (2018).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5th ed.). London: Palgrave.

Altenberg, E., & Vago, P. (2010). *English grammar: Understanding the basics*. Singapo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Washington, DC: Heinle & Heinle.

Cowan, R. (2013).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ve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8.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14). *An introduction to language* (10th ed.). Singapore: Wadsworth, Cengage Learning.

Haegeman, L., & Gueron, J.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Malden, MA: Blackwell.

Parrot, M. (2010).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Yong-Myeong. (2007). Validation of the common metric scale (CM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1), 21-44.

Swan, M., & Water, C. (2015). *Oxford English grammar course: Intermedi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용명(교수)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Email :mencius@anu.ac.kr
Tel: 054-822-5535

Received in October, 2021
Reviewed in November,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21